

2017년 4월 8일 9급 국가직 [국어] 국가직 기출 문제 해설

0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 구지가 -

- 1. 요구-위협-환기-조건 2. 환기-요구-조건-위협 3. 위협-조건-환기-요구 4. 조건-요구-위협-환기

정답: 2

구지가를 해석하면, "거북아 거북아(부름/환기) 머리를 내어라(명령/요구) 내놓지 않으면(가정/조건) 구워서 먹으리(위협/협박)"이다.

구지가

- 1. 갈래: 4언 4구체 한역 시가 2. 성격: 주술요, 집단요, 의식요, 노동요 3. 의의

- 1. 현전 최고(最古)의 집단 무요 2. 주술성을 지닌 현전 최고의 노동요

4. 주제: 수로왕의 강림 기원

5. 출전: 《삼국유사》

6. 해설: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4구체 한역 시가로,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집단 무요이다. 이 노래는 왕의 강림이라는 소망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상대방을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는 주 술적 방식이 쓰이고 있다. '대상을 부름 -> 명령 -> 가정 -> 위협'이라는 구조를 통해 새로운 군장을 맞이하려는 집단적 소망을 표현한 이 노래는 개인적 서정에 앞서 출현한 집단적 시가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0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 1.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삼을 씻는다. 2.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3. 화자는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4.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정답: 4

이 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삶을 자연물에 빗대어 그리고 있다.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라는 시구에서 나타나듯이,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또한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에서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이루는 요소들('강', '달')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화자나 화자의 삶과 동일시되어 그가 느끼는 삶의 비애를 심화시켜 주는 대상이다.

- 2.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와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에서 알 수 있다. 3.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는 화자가 노동자임을 드러내 주는 시구이다.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성찰적, 현실 참여적 3. 표현과 특성: 삶의 모습을 자연물에 빗대어 형상화함. 4. 주제: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 5. 해설: 이 시는 1970년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도시 노동자의 삶을 차분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의 한 국면을 자연물인 '강'의 흐름이라는 심상과 결합시켜 형상화함으로써 민중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0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민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정답: ②

밑줄 친 부분 중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이라는 표현은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으면 끝이 드러나는 데, 자신은 자루까지 드러날 정도로 남의 눈에 드러날 만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쓴 것이다. 이와 관련 있는 한자 성어로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인 ‘囊中之錐(주머니 낭, 가운데 중, ~의 지, 송곳 추)’가 가장 적절하다. 제시문은 ‘모수자천(毛遂自薦: 자기가 자기를 추천함)’과도 관련된 고사이다.

- ㉠ 모수자천(毛遂自薦): 자기가 자기를 추천함.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조나라 평원군이 초나라에 구원을 청하기 위하여 사신을 물색할 때에 모수가 스스로를 추천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②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
- ① 吳越同舟(오나라 오, 월나라 월, 한가지 동, 배 주):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馬耳東風(말 마, 귀 이, 동녘 동, 바람 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 ④ 近墨者黑(가까울 근, 먹 묵, 놈 자, 검을 흑):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향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졌는지 백화는 짝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였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택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중에서 -

- ① ‘눈 덮인 길의 고향’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②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③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④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정답: ③

영달이 백화를 업으면서 ‘대전에서의 옥자’를 떠올린 것은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볍기’ 때문이다. 영달은 백화의 쇠약해진 가벼워진 몸을 계기로 대전에서의 옥자를 떠올리게 된 것이다. 즉 ‘어린애처럼’은 몸무게의 가벼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③의 ‘생각이 깊지 않은’ 것과는 관계가 없다.

- ① ‘눈 덮인 길의 고향’에 빠져 백화가 발을 빼었으므로, 이것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④ 영달의 등에 업힌 뒤 백화가 “어깨가 참 넓으시네요”라고 말을 붙이는 데서, 백화가 영달의 등에 업힌 것을 싫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삼포 가는 길

- 1. 갈래: 단편 소설, 여로형 소설

㉠ 여로형 소설: 여행이 시작되면서 사건이 시작하고 여행이 끝나면서 사건이 끝나는 구성 방식으로, 주인공이 여행 과정에서 겪는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된다. 빗 김승욱, <무진 기행>: 주인공 ‘나’가 서울에서 고향인 무진으로 떠났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구성됨.

- 2. 성격: 사실적, 비판적
- 3.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4. 배경: 1970년대 어느 시골 마을, 공장에서 삼포로 가는 여로
- 5. 표현과 특성

- ① 간결한 대화와 행동 묘사를 통한 극적 제시
- ② 여로형 구조를 통해 소외된 인물들의 고달픈 인생과 유대감 형성화

- 6.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인생의 애환과 고향 상실의 아픔
- 7. 해설: 이 소설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소외된 계층의 삶의 아픔과 고향 상실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정 씨가 귀향하길 바라는 고향 ‘삼포’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오랜 방랑의 종착지이자 마음의 안식처를 상징하는 상상적 공간이다. 그러나 이들이 꿈꾸는 삼포는 산업화의 열풍 속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결국 정 씨는 고향 상실의 비운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정 씨의 운명은 산업화 과정에서 자신의 뿌리와 안식처를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며, 소설은 이를 통해 산업화 이면의 아픔과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0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정답: ③

제시문의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의 의미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③이다.

- ①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 ②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 ④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고치다

-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정답: ③
 소설 전체에서 ‘중국인 거리’는 소녀 ‘나’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 공간이 되는 중요한 배경적 역할을 하지만, 제시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적 특성이나 역할은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다.
- ㉞ 공간적 배경: 중국인 거리는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의 무대가 되었던 지역으로, 전쟁 직후의 참담한 흔적이 남아 있고 하층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일종의 빈민가이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 ‘나’가 이주한 곳으로, ‘나’에게 이곳은 낯설고 새로운 공간이다.
- ① 푸줏간에서 어머니의 말대로 행하는 것으로 보아, ‘나’가 어머니의 주의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어머니가 푸줏간으로 가는 심부름을 ‘나’에게 시키면서 당부하는 말을 통해,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손해 보기 싫어하는 어머니의 성격과 태도를 알 수 있다.
 ④ 중국인은 고기를 자르기도 전 “애라고 조금 주세요?”라는 ‘나’의 말을 듣고 웃는다. 이를 통해 중국인이 어린 ‘나’의 당돌한 모습에 대해 갖는 정서가 드러난다.

중국인의 거리

- 갈래: 단편 소설, 성장 소설
- 성격: 회상적, 서정적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배경: 한국 전쟁 직후, 항구 근처에 위치한 중국인 거리
- 주제: 유년 시절의 체험과 정신적·육체적 성장
- 해설: 이 소설은 한국 전쟁 직후, 일종의 빈민가인 중국인 거리를 배경으로 한 여자아이가 겪는 성장통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나’는 중국인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관찰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한다. 결말 부분에서 ‘나’는 첫 생리를 느끼는데 이는 그녀가 성인으로 성장해 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매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 ▶정답:
 글쓰는 마지막 단락에서, 생각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각을 형님, 말을 동생에 비유하여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데, 이는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문장에서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①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의 “말은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술에서,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③ 첫 번째 단락의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에서, 말과 생각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 ①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②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③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④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정답: ③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는 순진한 나비가 ‘바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만나 좌절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③ 나비의 의지 부족이나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시의 창작 시기인 1930년대를 고려할 때, 이 시는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 속에서 겪었던

- 지식인들의 지향과 탐색, 방향과 좌절을 표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① '청무우밭'은 나비가 동경하는 세계·생명의 공간을, '바다'는 냉혹한 현실·무생명의 공간을 의미하므로, 둘은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1연의 내용으로 '흰나비'는 '바다'가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잘 몰랐음을 알 수 있다.
 - ④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고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둘은 차가운 이미지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바다와 나비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주지적, 회화적
3. 어조: 절제되고 냉정한 어조
4. 표현과 특성:
 - ① 대비가 두드러짐.
 - 흰 나비-푸른 바다 → 시각 대비
 - 약함-강함, 순수-냉혹 → 속성 대비
 - ② 상징적 시어의 사용
 - ③ 감정을 절제한 어조로 현실 비판적 시각 표현
 - ④ 시각적 이미지 및 공감각적 이미지 사용
5. 주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6. 해설: 이 시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다'와 '나비'의 선명한 대비 구조이다. 이는 '강함 - 약함'이라는 속성의 대비에서 나아가, '청색'과 '백색'이라는 색채 대조에서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이라는 주제를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바다는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무생명성과 불모의 세계로 표현되며, 작가는 이러한 바다의 이미지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당대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시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새로운 세계란 근대 문명을, 그리고 이 세계에 뛰어 들었다가 좌절하게 된 나비는 바로 당대의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에서는 '-다'로 끝나는 냉정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듯 철저하게 감정을 억제하면서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식은 주지주의의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 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있다.

㉠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 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 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에서 -

- ①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 ②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 ③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 ④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정답: ㉡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인 구보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구보는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 '금광 브로커'라며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 문인들까지 사행심을 조장하는 황금광 열풍에 휩쓸리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 '금광 브로커'가 서술자의 예찬의 대상이라는 ㉡는 적절하지 않다.

- ① 구보는 ㉠ '개찰구' 앞에 서 있는 두 사내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이 시대의 무직자"이며 "금광 브로커"라고 추측하고 있다. <보기>에서 세태 소설은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단면을 그린다고 하였으므로 ㉠ '개찰구'는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임을 알 수 있다.
- ③ ㉢ 뒤의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묘사하여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고 하였으므로 ㉢ '황금광 시대'는 서술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당시의 사회상이라 할 수 있다.
- ④ 구보는 창작을 위해 광산에 가서 황금 열풍에 휩싸인 세태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오히려 고도의 금광열은 광산이 아닌 ㉣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서술자가 금광열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 갈래: 중편 소설, 심리 소설, 세태 소설
2. 성격: 심리적, 묘사적
3.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를 줌.)
4. 배경
 - ① 현실의 시공간-1930년대 어느 하루, 서울 거리
 - ② 의식의 시공간-도교 유학 시절
5. 표현과 특성
 - ① 작가 박태원의 실제 생활을 반영한 자전적 소설
 - ② 의식의 흐름 기법 사용

- 6. 주제: 1930년대 무기력한 문학인의 눈에 비친 일상사
- 7. 해설: 주인공 '구보'가 서울의 거리를 산책하면서 겪는 사소한 일들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물의 심리를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인공이 외출해서 귀가하기까지의 과정을 작중 화자의 관찰과 심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193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나약한 지식인의 갈등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13.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웅위하고 산중에 ㉠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 쏘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결로 함심(含心)하여 ㉢ 백옥루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택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愛恤)하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며 왈, “㉣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여 정언주부를 청입(請入)하여 몽사를 설화(說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여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 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뻗길러 생광(生光)은 만지(滿地)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중략)...

이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의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지라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력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 지 오래라.

- '유충렬전' 중에서 -

- ①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 ② ㉡: '부인'이 꾸는 꿈의 상황이다.
- ③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④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정답: ④

- ④ ㉣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는 부인의 꿈속에 청룡을 타고 나타난 선관이 청룡을 구름 중에 풀어 주며 한 말이다. 따라서 ㉣은 남악산의 신령이 아니라, 선관이 인간 세상(풍진)에 내려와서 겪게 될 일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악산 신령은 인간계에 내쳐져 천상으로 복귀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계에 내쳐진 선관에게 부인택으로 가라고 지시한 존재이다.
- ① 제물을 차려 놓은 부인이 지성으로 소원을 빌자 “㉠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는 것이므로 길조(吉兆: 좋은 일이 있을 조짐)가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흠향하다(歆饗--):神明(神明)이 제물을 받아서 먹다.
- ② 제시문의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 천상으로서 오운이 영롱하고 일원 선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 ~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천상의 존재인 선관이 부인의 꿈속에 나타나 “㉢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한 죄로 인간(인간 세상)에 내쳐졌다고 말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유충렬전

- 1. 갈래: 군담 소설, 영웅 소설, 국문 소설
- 2. 성격: 전기적, 비현실적, 우연적
- 3. 특성: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충실하게 드러냄.
- 4. 주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인 행적
- 5. 해설: 영웅의 일대기를 엮은 전형적인 군담 소설이다. 두 번에 걸쳐 호국을 징벌하고 호왕을 살육한다는 점에서,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대한 강한 민족적 적개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의 구조는 이인직의 신소설 <혈의 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학적인 의의를 갖는다.

14.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글의 진술 방식에는 ㉠설명, ㉡묘사, ㉢서사,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說明 描寫 敘事 論證
- ㉡ 設明 描寫 敘事 論症
- ㉢ 說明 猫鯨 徐事 論症
- ㉣ 說明 猫鯨 徐事 論證

▶정답: ①

- ①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한다는 뜻의 '설명'은 '說明(말씀 설, 밝을 명)'으로 쓴다.
- ②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다는 뜻의 '묘사'는 '描寫(그릴 묘, 베낄 사)'로 쓴다.
- ③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다는 의미의 '서사'는 '敘事(차려 서, 일사)'라고 쓴다.
- ④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힌다는 의미의 '논증'은 '論證(논할 논, 증거 증)'으로 쓴다.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 ① (가)-(나)-(다)-(라)
- ② (가)-(나)-(라)-(다)
- ③ (가)-(다)-(나)-(라)
- ④ (가)-(라)-(나)-(다)

▶정답: ②

선택지를 보면 모두 (가)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나)는 (가)를 인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라)는 (나)에서 언급한 '혜시(惠施)'를 부연하는 역할을 하므로 (라)는 (나) 뒤에 와야 한다.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물은 이쪽에서 보면 저것, 저쪽에서 보면 이것이 되기 마련이다. ➡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이것은 저것에서 비롯된다. 이것과 저것은 혜시가 말하는 방생의 설이다. ➡ (라) 그러나 혜시도 말하듯 '삶/죽음', '된다/안 된다', '옳다/옳지 않다'처럼 모든 현상은 상대적이다. ➡ (다) 그래서 성인은 상대적 입장이 아닌 절대적이며 긍정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입장에서는 이것과 저것의 구분이란 없다.

受驗生 여러분의合格을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김정진 선생 제공-

